

SK그룹,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

펀드규모 3210억원으로 확대 ... 해외연수 추가하고 MBA 신설도

SK그룹은 2012년 동반성장 경영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5월3일 발표했다.

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협력기업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<SK동반성장 아카데미>에 해외 연수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.

협력기업 중간관리자급 120명을 대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시행중인 MDP(경영개발프로그램: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)에 중국 연수과정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, 현지기업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.

앞서 SK텔레콤은 3월부터 중소 협력기업 직원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인 <동반성장 MBA> 과정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.

1차로 51명을 선발해 8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<동반성장 MBA>는 경영학, 인문학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온라인 강의와 집합교육, 워크숍을 병행해 교육성과를 높일 예정이며 수료 후 우수자를 선발해 해외 탐방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.

SK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협력기업에 저리로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<동반성장펀드>도 2012년 32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. 2010년 최초 설정한 1500억원의 2배 이상이다.

SK하이닉스는 2012년 100억원의 <동반성장보험>을 조성할 계획이다. 1차 협력기업에 부도가 발생하면 2차 협력기업이 보험금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연쇄 자금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.

SK텔레콤은 자체 기술개발과 시험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정보통신 분야 중소 협력기업들을 위한 전문기술지원센터도 조만간 설립할 계획이다.

SK그룹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협력기업의 핵심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<기술자료 임치제도>와 SK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협력기업에게 무상으로 넘겨 기술개발을 돕는 <특허양도 프로그램>도 확대하기로 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03>